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그 스승은 누구인가

정암正巖 권혁재 權赫彩(추밀공파 매현공계梅軒公系, 36세)



고려충신(高麗忠臣)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 수제자로 학문을 전수한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의 동생 매현(梅軒) 권우(權遇, 1363~1419)가 고려충신들과 함께 동조하여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갔다가 되돌아와 스승 정몽주(鄭夢周)에게 이성계(李成桂, 1335~1408) 병문안 길을 따라 나서니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는 제자 매현(梅軒) 권우(權遇)를 심하게 꾸짖으며 “이 길이 무슨 길인 줄 알고 따라오려 하느냐!”고 허통을 치며 “너는 살아서 내 종효학문을 전해 달라”고 하니, 하는 수 없이 정몽주 선생의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귀가했다. [용재총화 빙학집] 조선실록[朝鮮實錄]에 따르면 권우(權遇)는 정을 산내면(井邑 山內面) 처갓집 마을(장인 흥진)인 대장금 마을에서 은신하며 기거하다가 그 곳에서 둘째아들 권재(權採, 1399~1438)를 만난다. 그러던 중 형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찾아와 “성현(聖賢)도 여세출(與世出)한다”며 계속 설득하고 태자를 때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 1367~1422)을 친절하게 청하니 은신처 처갓집 대장금 마을에서 상경하게 된다.

두문동 수절신(杜門洞 守節臣)이라 하면 72현으로만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이조 현종 정미년(李朝 憲宗 丁未年, 1847)에 간행된 두문동 서원지(杜門洞 書院誌)에 보면 120현이라 하였으며 개성부(開城府) 종봉산 아래 동 두문동(東 杜門洞)에 무신(武臣) 48현이 있었고, 개성부(開城府) 만수산 아래 서 두문동(西 杜門洞)에는 문신(文臣) 72현이 있어서 모두 120현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성계(李成桂)가 왕사를 보내 마음을 돌리도록 누차 설득하였으나 그들이 거부하자 화가 난 이성계가 왕명으로 동서 두문동을 예워싸고 쇠를 쌓은 다음 불을 지르며 “너희들 중에 백이(伯夷), 숙제(叔齊)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자” 하였으나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모두 타죽고 말았다고 한다. 내가 대학(大學)을 배울 때 진서(眞書) 훈장이신 송재현(宋在鉉) 선생(면암勉庵 최의현崔益鉉 문하生)은 구전으로 정을 태인현(井邑 泰仁縣)의 상두산(象頭山)에도 고려수절신(高麗守節臣) 수십 명이 온거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1418년 매현(梅軒) 권우(權遇) 선생이 56세 때 무신계(武散階)의 한식에 있으면서 품계한 일이 임금의 노여움을 사 파직된 일도 있지만 태종(太宗)은 권우(權遇)의 탁월한 지식과 강직한 성격을 아시므로 6월에 세자 제(禔, 양녕대군讓寧大君)를 폐하고 3남 충녕대군(忠寧大君, 도규, 후에 세종대왕)을 책임하여 세 세자의 민사(賓師)를 국선하는데 매현공(梅軒公) 권우(權遇)를 선택하여 예문관 제학(藝文館 提學)에 세자우부민객(世子右副賓客) 겸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로 발탁 위촉하니 세자를 동궁의 서연(書筵)에서 최고의 정성으로 세자와 더불어 날

안동태사묘 삼성(三姓)의 연락소현판 말끔하게 보수



안동시 태사길(북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태사묘



장씨 안동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연락소

안동김씨 화수회 연락소



안동태사묘 정문에 있는 경모루

안동태사묘의 동재 및 서재에 걸려있는 삼성의 연락소현판을 말끔하게 보수하여 바꿔 놓았다.

26일 안동태사묘 관리위원회(위원장 김효진)에 따르면 안동시 태사길(북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태사묘의 동재(東齋) 및 서재(西齋)에 걸어놓은 안동김씨, 안동권씨, 안동장씨 등 삼성(三姓)의 연락소 현판이 50여년 전에 설치되어 그동안 햇볕에 그늘리는 등 낡고 오래돼 현판 글씨를 잘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코로나로 태사묘에 관계자와 출입이 금지된 틈을 타서 삼성의 연락소 현판을 말끔하게 보수했다.

길이 1.5~2m, 너비 40~50cm 크기의 연락소 현판 글씨가 페인트로 쓰여져 있었으나 오랜 세월동안 빛이 바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3일에 걸쳐서 페인트로 쓴 글씨를 제거하고 작품용 면으로 써서 니스칠을 하는 등 말끔하게 바꿔 놓았다.

태사묘는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곳이다.

현재 태사묘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12월 23일부터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관계자와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보도부장 권영건

형설지공(蠻雪之功)으로 꿈을 이룬 권진성 변호사



권진성 변호사는 낮에는 로스쿨, 밤엔 경비로 주경야독(晝耕夜讀)하며 지난 4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권진성 변호사는 1984년 동아대 법대에 입학했다.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도합 1차 시험만 여섯 번 불고, 2차 시험에선 열두 번 떨어졌다.

그동안 생계를 위해 치킨 가게도 운영하고, 청소도 하고 막노동도 서슴지 않았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건물 경비를 하고 있었다.

변호사되는 꿈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대학을 졸업한지 31년 만인 2015년 동아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러나 합격은 쉽지 않았다. 로스쿨 졸업 후에도 변호사 시험에 두 번 낙방했다. 올해 세 번

째 도전에서야 그렇게 원하던 변호사 시험에 드디어 합격했다.

가슴 뭉클한 인간 승리이다. 반딧불과 눈(雪)빛으로 불을 밝히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법전을 읽어 감격적으로 형설(蠻雪)의 공(功)으로 꿈을 이룬 것이다.

대학교 1학년 20대 초반에 뜻을 세운 후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디며 천신만고 끝에 55세에 그 뜻을 이루었으니 그야말로 임지전적(立志傳的) 인물임에 틀림없다.

아들의 합격을 평생 소원했던 어머니는 합격한 지 2개월도 채 안 돼 별세했다고 한다. 전남곡성이 고향이고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뜻과 유래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뜻의 마부작침은 갈마磨, 도끼부斧, 만들작, 바늘침針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당나라 뿐 아니라 중국 역사를 대표하는 신인 이백의 자는 태백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중국의 쪽 땅을 방문해 유년시절을 보내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도교에 선후회했던 이백은 이미 10살 때부터 시와 글에서 신동으로 불릴 만큼 그 재주를 보였다. 하지만 공부에는 별 흥미가 없었기에 그 아버지는 걱정하며 이백에게 스승을 붙여 상의 산이라는 산에 보내게 된다. 하지만 이백은 얼마 못가 공부에 싫증이 났고 스승 몰래 산을 내려와 도망치려는 계획을 세운다.

마침내 이백은 기회를 엿보다 스승 몰래 산을 내려가는데 성공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에 한 노파가 뱃가에서 바위에 큰 도끼를 쉼 없이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이백이 노파에게 묻는다.

“할머니 지금 뭐하시고 계신가요?”

그러자 노파가 당연하다는 듯이

“바늘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자 이백은

“아니 도끼로 바늘을 만들다니요?”

노파는 놀라는 이백을 보며

“그래 이렇게 돌마다 같다 보면 바늘이 되지 않겠느냐?”하였다.

노파의 어이없는 대답에 이백은 크게 웃으며

“할머니, 그 도끼를 얼마나 오래 갈아야 바늘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 이에 노파는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갈아보면 이 커다란 도끼도 바늘이 되는 법”이라고 말한다.

이에 이백은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 이 문제일 뿐이고 끝까지 하면 꼭 결과를 얻게 되는 구나(마부작침의 의미)라고 생각하며 다시 산으로 올라가 공부에 정진하게 된다.

이후 이백은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노파의 말을 생각하며 학문에 정진했다고 한다.

청개(青階) 권오진(權五辰, 부정공파 35세)

안동역 90년 만에 새 안동역으로 이전



신 안동역



구 안동역, 안동역 앞에는 가수 진성의 '안동역에서'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